2017 지방직 9급

해설 : 아모르이그잼학원 이명호 교수

<총평>

4월에 치렀던 국가직 시험 이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달려와 이번 지방직 시험까지 치른 수험생들 모두에게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냅니다. 몇 시간 전,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저도 문제를 받아보고 우리가 함께 호흡했던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1. 시험의 난이도

난이도(難易度)란 말 그대로 문제가 '어렵고, 쉬운 정도'입니다. 난이도는 각자 느끼는 '난이도'가 다르므로 이 주관적인 정도를 명확히 수치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체감 난이도'와 실제 점수화된 결과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시험은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본다면, 쉽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하면서 쉽게 단정 지은 어떤 개념들이 실제로는 다른 것을 지칭하는 것인,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 때 우리에게 신속성과 함께 '신중함'이 함께 요구된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을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2.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나?(총 20문항)

구분	시대 상세	문제 번호 (B책형)	출제된 내용	자료 제시
고대	선사	1번	구석기 시대 상세 구분	×
	초기 국가	4번	부여, 고구려의 특징	○
	삼국	7번	백제의 귀족회의와 통치 체제	○
	통일 신라	5번	신라 하대 및 고려의 6두품 출신 인물들의 특징	×
	통일 신라	6번	장보고의 업적과 활동	○
중세	고려	9번	의천과 지눌의 사상과 특징	○
	고려	10번	고려의 무역 및 화폐유통	○
근세	조선 전기	12번	공법(세종)	○
	조선 전기	14번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	×
	조선 후기	8번	정약용의 저술	○
	조선 후기	13번	균역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 감소 보완책	○
	-	11번	한양 도성의 수립과 경복궁의 배치	×
	-	15번	우리나라의 족보	×
근대	개항·개화기	17번	조선책략 및 전·후 사건	○
	일제 강점기	2번	신채호의 저술과 활동	○
	일제 강점기	18번	조소앙의 사상과 활동	○
현대	-	20번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시기	○
	-	16번	개헌과 동 시기의 사건	○

	-	19번	현대의 시대별 교육 · 문화	×
종합	-	3번	군사 제도의 변천(전 시대)	×

(1) 시대별로 본다면 전근대사 13문항, 근현대사 6문항, 전 시대에 걸친 문제 1문항으로, 통상적인 수준의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2) 13문항은 자료를 제시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13문항 중 3문항은 자료 하단에 '출처'를 제시하였습니다. 고구려 · 부여 문제의 출처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 장보고 문제의 출처인 '입당구법순례행기', 백제 통치체제 문제의 출처인 '삼국유사'가 그것입니다. '아와 비아의 투쟁'을 보고 신채호의 '조선상고사'임을 알아야 하고, '정, 혜'를 보고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임을 알아야 하고,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 가죽신'을 보고 '삼국지 위서 동이전'의 부여조임을 알아야 하고, '백성, 백성, 백성……'을 보고 정약용의 '목민심서'임을 알아야 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부터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자료는 기출 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기출문제의 사료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다른 질문과 섞여 있으므로 인물 문제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약 7문제가 '인물'의 저술, 사상, 활동 사항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최치원 · 최언위 · 최승우의 각각의 특징, 장보고의 활동, 의천 · 지눌의 사상, 정약용의 저술, 신채호의 저술과 활동, 조소앙의 사상과 활동에 대해 물었습니다. 역사란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니, 우리의 복습 시간에 '인물사' 정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3. 앞으로의 대책

'더 자세히 봐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면 오늘 시험에서 옳은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회독수를 높여서 기본 내용을 우선 정리한 후, 되도록 빨리 다른 이들이 아직 챙기지 못한 '밑줄 치지 않은 부분'까지 보는 수험생이 한 문제라도 더 정확하게 풀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땐, 그렇게 욕심을 많이 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 성과가 좋은 수험생들께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에서 다소 미흡하였다 하더라도 고개 숙이거나 그러지 말고 주먹을 한 번 더 쥐고, 의자를 당겨 앉고, 힘 있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세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설>

1. 한국사 선사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석기시대 전기에는 주먹도끼와 슴베찌르개 등이 사용되었다.
② 신석기시대 집터는 대부분 움집으로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다.
③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④ 청동기시대의 전형적인 유물로는 비파형동검·붉은간토기·반달돌칼·홈자귀 등이 있다.

1. 정답 ①
해설 :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를 사용한 시대로서, 석기를 다듬는 수법에 따라 전기, 중기, 후

기의 세 시기로 나누어진다.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전기부터 사용한 도구이다. 그러나 '슴베찌르개'는 구석기 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석기이다.
② 신석기시대 움집의 바닥은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고, 청동기 시대 움집의 바닥은 직사각형이다.
③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조개류를 많이 먹었으며, 때로는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사실은 부산 동삼동의 조개더미[패총, 貝塚]와 여기에서 발견된 조개껍데기 가면[패면, 貝面]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청동기 시대의 동검은 비파형 동검(요령식 동검)이고, 대표적인 토기는 붉은간토기 · 민무늬토기이며, 대표적인 석제 농기구는 반달돌칼 · 홈자귀(유구석부)이다.

2. 다음 자료를 쓴 역사가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 역사란 무엇이뇨.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심적 활동의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니라.

① 『여유당전서』를 발간하여 조선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하였다.
②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애국명장의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③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
④ '5천 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2. 정답 ②
해설 : 「조선상고사」에서 역사를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의 기록'으로 묘사한 인물은 신채호(1880~1936)이다. 신채호는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등 애국명장의 전기를 써서 애국심을 고취하였다.
① 정인보, 안재홍 등은 여유당 정약용의 글을 모은 『여유당전서』 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조선후기 실학자들을 재평가하여 '조선학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백남운은 『조선사회경제사』를 저술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
④ 정인보는 '5천 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동아일보에 연재하여 민족 정신을 고취하였다.

3. 군사제도가 실시된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중앙	지방
ㄱ	9서당	10정
ㄴ	5위	진관체제
ㄷ	5군영	속오군
ㄹ	2군과 6위	주현군과 주진군

① ㄱ→ㄴ→ㄷ→ㄹ
② ㄱ→ㄹ→ㄴ→ㄷ
③ ㄴ→ㄱ→ㄷ→ㄹ
④ ㄴ→ㄹ→ㄱ→ㄷ

3. 정답 ②

해설 : 역사상 중앙군과 지방군은 ㄱ(통일신라) →ㄹ(고려) →ㄴ(조선전기) →ㄷ(조선후기)의 순서로 변화하였다.

	중앙	지방	시대
ㄱ	9서당	10정	통일신라
ㄴ	5위	진관체제	조선 전기
ㄷ	5군영	속오군	조선 후기
ㄹ	2군과 6위	주현군과 주진군	고려

4. (가), (나)의 특징을 가진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가) 옷은 흰색을 숭상하며,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 (나) 부여의 별종(別種)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많이 같지만 기질이나 옷차림이 다르다.
>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① (가) -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② (나) -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③ (가) -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
④ (나) -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반어피 등이 유행하였다.

4. 정답 ③

(가) '흰 옷을 즐겨입고, 흰 베로 만든 큰 소매 달린 도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 나라는 '부여'이다.
(나) 부여족은 부여 뿐만이 아니라, 고구려 · 옥저 · 동예도 만들었다. 특히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부여의 별종(別種)'으로 기록된 나라는 고구려이다. 이 책에서는 고구려를 '예부터 동이에서 전하는 말에 따라 부여와 다른 종[별종]이라고 여겨진다. 언어와 풍속은 대부분 부여와 같지만 성정, 기질, 의복은 다르다.'고 묘사한다.
③ 부여와 고구려는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다(1책 12법).
① 옥저에는 혼인풍속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② 삼한에는 제사장인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가 있었다.
④ 동예에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반어피 등이 유행하였다.

5. 다음 글을 지은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 (가)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朗慧和尙白月葆光塔碑文)
> (나) 대견훤기고려왕서(代甄萱寄高麗王書)
> (다) 낭원대사오진탑비명(郎圓大師悟眞塔碑銘)

① 골품제를 비판하고 호족 억압을 주장하였다.
② 국립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에서 공부하였다.
③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왕조에서도 벼슬하였다.
④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였다.

5. 정답 ④

해설 : 소위 '3최' 문제이다. (가) 성주사 '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은 신라 하대의 6두품인 최치원이 지었다. (나) '대견훤기고려왕서'는 견훤을 '대신'하여 고려왕 왕건에게 보낸 서신으로, 신라 하대(후삼국 시대)의 6두품인 최승우가 지었다. (다) 보현사 '낭원대사오진탑비명'은 6두품 출신 최언위가 지었다.

④ 신라 말에 도당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빈공과에 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중 6두품 출신인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도 당에 유학하면서 빈공과에 급제하였다.

① 6두품은 골품제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호족의 억압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신라 하대에 호족 세력과 연계하여 사회 개혁을 추구하였다.

② 고구려의 국립 교육기관인 태학(太學)에서 공부한 이들은 '귀족의 자제들'이다.

③ '최언위'는 신라뿐만 아니라 고려왕조에서도 벼슬하였다. 그는 태조를 보필하며 유교주의에 입각한 통치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최치원과 최승우는 그 사망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왕조에서 벼슬을 하지는 않았다.

6. 다음 밑줄 친 '대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이 엔닌은 대사의 어진 덕을 입었기에 삼가 우러러 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해 당나라에 머물러 왔습니다. 부족한 이 사람은 다행히도 대사께서 발원하신 적산원(赤山院)에 머물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경(感慶)한 마음을 달리 비교해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 -『입당구법순례행기』-

① 법화원을 건립하고 이를 지원하였다.

② 당나라에 가서 서주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③ 회역사, 견당매물사 등의 교역 사절을 파견하였다.

④ 웅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長安)이라는 나라를 세웠다.

6. 정답 ④

해설 : '엔닌'은 일본 승려이고, 출처인 '입당구법순례행기'는 엔닌이 당나라를 둘러보고 쓴 기행문이다. 엔닌이 머물 수 있었다는 '적산원(赤山院)'은 '법화원'의 다른 이름이다. 적산원(적산법화원)은 신라 시대 장보고가 당의 산둥반도에 세운 불교 사찰이다. 밑줄 친 '대사'는 청해진 대사 장보고이다.

①~③ 장보고는 법화원을 건립하였고, 청해진을 설치하기 이전에 당에 가서 '무령군 소장'이라는 직책을 맡기도 하였다.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청해진 '대사'가 된 이후 해적을 소탕하고 서남부 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했다. 그리고 당에는 견당매물사를, 일본에는 회역사를 파견하여 당-신라-일본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주도하였다.

④ 웅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켜 장안(長安)이라는 나라를 세운 인물은 '웅천주 도독 김헌창'이다.

7. 다음 (가)에서 이루어진 합의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통치체제로 옳은 것은?

> 호암사에는 ___(가)___(이)라는 바위가 있다.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뽑을 때에 후보 3, 4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 바위 위에 두었다가 얼마 후에 가지고 와서 열어 보고 그 이름 위에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삼았다.
>
> -『삼국유사』-

ㄱ. 중앙정치는 대대로를 비롯하여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나누어 맡았다.
ㄴ. 중앙관청을 22개로 확대하고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정비하였다.
ㄷ. 16품의 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계에 따라 옷의 색을 구별하여 입도록 하였다.
ㄹ. 지방 행정 조직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ㅁ. 중앙에 3성 6부를 두고, 정당성을 관장하는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7. 정답 ②

해설 : '(가)에서 이루어진 합의제도'는 정사암 회의이며, 이 '제도를 시행한 국가'는 백제이다.
ㄴ. '백제'는 6세기 성왕 때 중앙관청을 22개로 확대하고 수도는 5부, 지방은 5방으로 정비하였다.
ㄷ. '백제'는 3세기 고이왕 때 16품의 관등제를 시행하고, 품계에 따라 옷의 색을 구별하여 입도록 하였다.
ㄱ. '고구려'의 중앙정치는 대대로를 비롯하여 10여 등급의 관리들이 나누어 맡았다.
ㄹ. '통일신라'는 지방 행정 조직을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ㅁ. '발해'는 중앙에 3성 6부를 두고, 정당성을 관장하는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8. 다음 글을 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백성에게서 걷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하는 방법은 알지 못한다. …… '심서(心書)'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무엇인가? 백성을 다스릴 마음은 있지만 몸소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② 『농가집성』을 펴내 이앙법 보급에 공헌하였다.
③ 홍역 관련 의서를 종합해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④ 조선시대의 역사를 서술한 『열조통기』를 편찬하였다.

8. 정답 ③

해설 :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지방관인 수령(목민관)을 말한다. 수령의 수신 교과서로서 '심서(心書)'라고 이름 붙여진 책은 '목민심서'이며, 이 '글을 쓴 사람'은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홍역 치료에 관한 책' 「마과회통」을 저술하였다.
① '김석문'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② ‘신속’은 「농가집성」을 펴내 이앙법 보급에 공헌하였다.
④ ‘안정복’은 조선시대의 역사를 서술한 「열조통기」를 편찬하였다.

9.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한 <보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교(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안의 마음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禪)을 익히는 이는 인연을 잊고 안의 마음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는 “정(定)은 본체이고 혜(慧)는 작용이다. 작용은 본체를 바탕으로 존재하므로 혜가 정을 떠나지 않고, 본체가 작용을 가져오게 하므로 정은 혜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 보 기 > ㄱ.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ㄴ. (가)와 (나)는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다. ㄷ. (가)는 불교와 유교 모두 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같다는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ㄹ. (나)는 수선사 결성을 제창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9. 정답 ②
해설 : (가)는 교(敎)와 선(禪)을 모두 배우고 익히자는 주장으로, ‘의천’의 「대각국사문집」에 기록된 자료이다. (나)는 정(定)과 혜(慧)가 모두 중요하다는 주장으로, ‘지눌’의 「권수정혜결사문」에 기록된 자료이다.
ㄱ. 의천과 지눌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나,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다.
ㄹ. 지눌은 수선사 결성을 제창하여 불교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ㄴ. 지방 호족과 연합하여 신라 정부의 권위를 약화시킨 사람들은 ‘신라 하대 선종 승려들’이다.
ㄷ. 혜심은 유·불 일치설을 주장하였다.

10.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대외 무역이 발전하면서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가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했으며, 대식국(大食國)으로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들도 들어와 수은·향료·산호 등을 팔았다.

① 해동통보와 은병(銀甁) 같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② 인구·토지면적 등을 기록한 장적(帳籍, 촌락문서)이 작성되었다.
③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개설해서 활동하였다.

④ 지방 장시의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뿐 아니라 숙박·창고·운송 업무까지 운영하였다.

10. 정답 ①

해설 :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번성하였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수은, 향료, 산호 등을 가져와서 팔았던 '시기'는 고려 시대이다. 고려 숙종 때 해동통보와 은병(銀甁) 같은 화폐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② 통일신라 시대에 인구·토지면적 등을 기록한 장적(帳籍, 촌락문서), 즉 민정문서가 작성되었다.

③ 조선 시대에 개성의 송상은 전국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개설해서 활동하였다.

④ 조선 후기에 포구상업이 발달하면서, 지방 장시의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뿐 아니라 숙박·창고·운송 업무까지 운영하였다.

11. 조선시대 도성 한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복궁 근정전의 이름은 정도전이 지었다.

② 경복궁의 동쪽에 사직이, 서쪽에 종묘가 각각 배치되었다.

③ 유교사상인 인·의·예·지 덕목을 담아 도성 4대문의 이름을 지었다.

④ 도성 밖 10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11. 정답 ②

해설 : 「주례」의 예에 따라 경복궁의 왼쪽에는 종묘를, 오른쪽에는 사직(사직단)을 두었다. 이것은 남쪽을 바라보며 왼쪽, 오른쪽을 따진 것으로, 결국 경복궁의 왼쪽(동쪽)에는 종묘가, 경복궁의 오른쪽(서쪽)에는 사직이 배치되었다. (지하철 3호선 경복궁 역에서 동쪽으로 두 정거장 가면 종묘 옆에 있는 '종로 3가역'이 나온다.)

① 한양 도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경복궁 내의 건물 배치까지 주도하였던 정도전은 경복궁의 정전의 이름을 근정전(勤政殿)라고 하였다.

③ 한양 도성의 4대문은 흥인문(興仁門, 동대문), 돈의문(敦義門, 서대문), 숭례문(崇禮門, 남대문), 숙청문(肅淸門, 숙정문, 북대문)이다. 4대문은 각각 유교의 인·의·예·지(청) 덕목을 담아 지은 것이다.

④ 한양도성은 성저십리(城底十里)라 하여 도성 밖 10리 안에는 개인의 무덤을 쓰거나 벌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

12. 밑줄 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왕이 말했다. "나는 일찍부터 이 <u>제도</u>를 시행해 여러 해의 평균을 파악하고 답험(踏驗)의 폐단을 영원히 없애려고 해왔다. 신하들부터 백성까지 두루 물어보니 반대하는 사람은 적고 찬성하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백성의 뜻도 알 수 있다."

①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②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4~6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③ 토지 소유자에게 1결당 미곡 12두를 조세로 징수하였다.

④ 토지 소유자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12. 정답 ①

해설 : 과전법 아래에서의 '답험손실법(손실답험법)'의 폐단을 없애고, '수등이척법'에 따라 '공법'을 실시한 왕은 '세종'이다. 세종은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1결의 면적을 따로 정하고 조세를 차등 징수하였다. 이를 전분 6등법이라 한다.

② 16세기 이후 왜란, 호란을 거치며 농경지가 황폐화되고 극히 감소된 상태에서 토지 제도도 함께 문란해졌다. 이에 따라 연분 9등법 자체가 무시된 채 1결당 4~6두를 징수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었다. '인조'는 이것을 법제화하여 전세를 풍흉에 상관없이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킨 영정법을 실시하였다.

③ '1결당 미곡 12두'는 조세(전세)가 아닌 대동법에 어울리는 말이다.

④ 과전법 아래에서의 수취 제도에서 '수확량의 10분의 1을 조세로 징수'하였다.

13. 다음 지시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 옳은 것은?

> 왕이 양역을 절반으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 호포(戶布)나 결포(結布) 모두 문제가 있다. 이제 1필을 줄이는 것으로 온전히 돌아갈 것이니 경들은 1필을 줄였을 때 생기는 세입 감소분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라."

① 지조법을 시행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하였다.

②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하였다.

③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하고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다.

④ 일부 양반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13. 정답 ④

해설 : 호포론이나 결포론 등의 양역변통론이 모두 문제가 있어서, 영조 때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인 제도는 '균역법'이다. '다음 지시'란 균역법 시행으로 인한 재정 감소 보완책을 말한다. 당시 '일부 상류층(부유한 평민층)'에게 선무군관이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를 선무군관포라 한다. 이들 중에는 양반의 신분을 얻은 이들도 있었지만, 선무군관포 자체를 설명하면서 '일부 양반층'이라 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① 갑신정변 때 지조법을 '개혁'하고 호조로 재정을 일원화자고 주장하였다.

②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물을 쌀이나 무명, 동전 등으로 통일'한 제도는 대동법이다.

③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도록 권장하고 전국적인 양전 사업을 시행'하였다는 문장은 여러 왕에 어울릴 수 있다. 그 중 왜란 후 전후복구사업을 추진했던 광해군에 가장 잘 어울린다.

14.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조선은 훈련도감을 설치해 군대의 편제를 바꾸었다.

② 조선군은 명나라 지원군과 연합하여 일본군에게 빼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③ 전세가 불리해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란이 끝났다.

④ 첨사 정발은 부산포에서, 도순변사 신립은 상주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지만 패배하였다.

14. 정답 ④

해설 : 정발이 부산포(부산성)에서 싸운 것은 맞지만, 신립이 '상주'에서 싸웠다는 표현은 잘못되었다. 신립은 '충주' 탄금대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웠으나 패배하였다.
① '휴전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이란 임진왜란(1592~1593)과 정유재란(1597~1598) 사이를 말한다. 이 사이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1593).
② 조선군은 이여송이 이끄는 명군과 연합하여 고니시 유키나가의 왜군에 빼앗겼던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③ 정유재란으로 왜군이 다시 쳐들어왔으나 이순신의 활약으로 왜군의 전세가 불리해졌다. 왜군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15. 우리나라 족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후기에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기도 하였다.
② 조선초기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수록하였다.
③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성종 7년에 간행된 『문화류씨가정보』이다.
④ 조선시대에는 족보가 배우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5. 정답 ③
해설 :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 조선 성종 7년(1476년)에 간행된 '안동권씨성화보'이다.
① 조선후기에 부유한 농민들은 족보를 사거나 위조하여 신분을 상승시키기도 하였다.
② 고려 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의 족보는 친손과 외손을 모두 기재하였다.
④ 조선 시대에는 족보를 통해 안으로는 종족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밖으로는 다른 종족이나 하급 신분에 대해서 문벌의 권위를 과시하는데 이용되었다. 또한 족보는 결혼 상대자를 구하거나 붕당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16.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한다.

① (가) -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② (나) -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③ (다) -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되었다.
④ (라) -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16. 정답 ③
해설 :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는 '제8차 개헌(1980)'의 내용이다.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는 '제헌 헌법(1948)'의 내용이다.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의미로 '제2차 개헌(1954)'의 내용이다.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한다.'는 '제7차 개헌(1972, 유신헌법)'의 내용이다.
③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등록이 취소'된 것은 1958년으로, 이승만 정부 말기이다. 이 시기는 제2차 개헌(1954, 사사오입개헌)과 제3차 개헌(1960) 사이이므로 제2차 개헌 헌법이 적용되는 시기이다.
①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한 것은 1991년으로, 노태우 정부 때이다. (가)~(라) 중 적합한 것이 없다.
②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된 것은 1953년으로, 이승만 정부 때이다. 이 시기는 제1차 개헌(1952) 헌법이 적용되었던 때이므로 (다)와 연결되어야 한다.
④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 즉,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때는 1972년으로, 박정희 정부 때이다. 제7차 개헌 헌법(유신헌법)은 1972년 10월에 확정되었으므로, 7·4 남북 공동성명되었던 7월에는 아직 유신헌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17. 다음 자료가 조선 조정에 소개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과 친하고〔親中〕 일본과 맺고〔結日〕 미국과 연합해〔聯美〕 자강을 도모하는 길 뿐이다.

①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설립해 서양의 새 학문을 교육했다.
②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③ 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④ 최익현은 일본과 통상을 반대하는 「오불가소(五不可疏)」를 올렸다.

17. 정답 ④
해설 : '다음 자료'인 조선책략이 '조정에 소개된 이후'란 1880년 말 이후이다.
④ 최익현의 「오불가소」는 '1880년 이전'인 1876년에 올린 상소문이다.
① 1886년, 육영공원을 설립해 서양의 새 학문을 교육했다.
②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고 제물포조약이 체결되어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③ 1884년, 개화파가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18.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을 정립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①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②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었다.
③ 제헌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④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주장하였다.

18. 정답 ③

해설 : 제시된 자료는 1941년 11월 25일에 발표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제1장 강령'의 일부분이다.

제1장 강령 1.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이 반만년 이래로 공통한 말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통한 민족정기를 길러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조직임. 2.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조들이 분명히 명한 바「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泰平)하리라」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향유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려 함이니 홍익인간(弘益人間)과 이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公理)임. 3. (이하 생략)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상'이란 삼균주의이며, 이 사상을 정립한 인물은 조소앙(1887~1958)이다. 조소앙은 제헌국회의원은 아니었고, 이후 1950년에 실시된 5·30 총선거에 당선되어 국회에 진출하였다.

① 1940년에 한국국민당,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이 합당하여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였다. 이때의 주도 인물은 김구, 조소앙, 지청천이었으며, 최종적인 당명인 '한국독립당'은 조소앙의 당명을 채용한 것이었다.

② 조소앙은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국무위원에 선임되었고 이후 외교면에서 큰 활약을 하여 이후 임시정부 외무부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④ 조소앙은 개인간에 정치 균등, 경제 균등, 교육 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치 균등이란 보통선거를, 경제 균등이란 국유 제도를, 교육 균등이란 의무교육(공비교육)을 의미한다.

19. 시대별 교육문화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군정기 :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과 6-3-3학제가 도입되었다.
② 1950년대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었다.
③ 1960년대 : 입시과열을 막기 위해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가 도입되었다.
④ 1970년대 : 국가주의 이념을 강조한 국민교육헌장이 제정되었다.

19. 정답 ④

해설 : 1968년 박정희 정부는 국민 교육 헌장을 제정하였다. 즉 1970년대가 아닌 1960년대이다.

① 1949년, 미군정 시기에 6-3-3 학제가 시작되었다.
② 1950년부터 초등학교 의무교육제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했다.
③ 1969년, 박정희 정부는 중학교 무시험 추첨제를 도입하였다.

20.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 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 제3조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① 이 법령에 따라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② 이 법령의 제정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이었다.
③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④ 이 법령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직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20. 정답 ④
해설 : 제시된 자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1948. 9. 22)의 일부이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여수·순천 10·19 사건(1948)이 일어났다.
① 이 법령에 따라 대법원에 특별 재판부가 설치되었다.
② 이 법령은 제헌헌법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제헌국회에서 제정하였다.
③ 이 법령에 따라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반민족행위자들이 체포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